

벤처기업 윤리경영 성공사례(4) 창조적 나눔을 실천하는 비트컴퓨터

글_ 박현준(연세대학교 교수)

의료정보 전문기업 비트컴퓨터는 1983년 조현정 대표가 두 명의 직원과 함께 450만원의 자본금으로 호텔 객실 하나를 빌려 창업하여 최근 연 매출액 200억대의 중견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성장을 이끈 원동력에는 ‘깨끗함과 나눔’이라는 독특한 기업윤리가 기반이 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지금도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S/W강국을 만들어 미래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비트교육센터를 세웠다. 또한 ‘조현정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시하며 창업초기에 스스로 다짐했던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오고 있다.

초심으로 정도와 원칙경영 실천

조현정 대표의 경영마인드는 ‘정도경영과 원칙경영’이다. 원칙경영은 관련업종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으로 나타나, 비트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에 대처해 나갈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또 거래관행에서도 가격할인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업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은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거나 원가를 맞추기 위해 결점이 있는 제품을 납품하게 되어, 끝내 그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비트컴퓨터는 향상된 성능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당장의 비용절감보다 회사전체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정도를 걷는다. 대학시절부터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했기에 탈세라는 단어가 없다. 비트교육센터 건물을 구입했을 때 주변에서 소방점검을 적당히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었지만,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1억 이상의 비용을 소요한 것도 비용절감보다 원칙 준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눔의 문화는 디지털시대의 생존 전략

조대표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더 큰 도약을 위해 사회의 기반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교육센터 수료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해야하고 ‘졸업소프트웨어 모음집’에 창의적인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각 대학에 비치해 둔다. 이는 교육생들이 디지털시대의 IT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일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조대표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나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나의 지식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디지털시대의 생존전략이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법칙일 뿐이다.”라고 강조한다.

사람을 키우는 ‘조현정재단’

조대표는 ‘디지털시대의 리더는 나누는 리더’라는 생각 아래 ‘조현정재단’을 설립했다. ‘조현정재단’은 크게 장학금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장학금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장학생으로 선발, 대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속적인 장학생 관리로 미래 사회의 지도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금이 부족한 인문·사회분야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매년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에 비트학술상 및 비트연계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경비트학술상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의 교수와 연구원의 논문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비트컴퓨터는 리딩벤처 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